

“사람이 번호로 바뀌는 정보화사회라면”

톨러런트시스템으로 그동안의 실랑이를 마무리

술한 화제를 뿌리며, 관계부처 및 업계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행정전산망의 주전산기 도입이 결정되었다.

지난 1983년 7월에 보고된 『국가 기간전산망계획구상안』은 2년이 넘은 이례적 주전산기 도입에 대한 실랑이를 끝낸 것이다. 결정된 시스템은 미국의 톨러런트시스템, 내년 1월까지 이의 도입 계약이 체결된다. 그리고 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중심으로 2~4개의 국내업체를 참여시킨 주전산기 공동 개발 체제를 구축하여 한국형 슈퍼미니급 컴퓨터를 개발하게 된다.

주전산기로 도입된 톨러런트시스템은 32비트 칩을 활용한 멀티프로세서를 채택, 확장성이 뛰어나며 최대 2,160대의 터미널을 연결할 수 있는 신기종으로 알려졌다.

행정전산망이 가지는 의미는

행정전산망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행정부서에 컴퓨터를 설치, 사도단위별로 각각 행정자료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중통신망을 통해 각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는 행정정보들을 지역간에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의 행정업무가 전산처리되며, 또 처리된 행정정보를 전국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어 일 처리가 신속, 정확해진다.

이 계획에 소요되는 하드웨어는 주전산기 86대, 다기능 사무기기 9,5

98대이며, 소요인원 11,088명에, 1,513억원의 비용이 든다. 막대한 인원과 비용이 요청되는 만큼 침체상태에 있는 컴퓨터 업계에 있어, 이 계획은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으며, 관심의 초점이 되었고, 그에 따라 잡음도 많았다.

행정전산망의 실시로 달라지는 것은

행정전산망의 주무업체인 한국데이터통신이 제출한 사업 추진 방향에 따르면, 파급효과가 큰 6개 부문의 업무부터 전산화가 시작된다. 그 6개 부문은 주민관리, 부동산관리, 경제통계, 통관관리, 고용관리, 자동차관리 등이다. 그 중 최대 프로젝트인 주민관리 전산화를 통해 행정전산망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보자.

주민관리전산화는 지난 86년 3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전국 8개 시범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다. 주민관리전산화는 제일 먼저 주민정보의 원시자료 입력부터 시작되는데,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인구의 자료—나이, 성명, 직업, 가족상황, 재산보유관계, 병역, 범죄행위 등—가 수록된다.

주민관리전산화의 기대효과는 민원사무의 온라인 처리,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인적(人的)정보 제공, 인적사항의 자동추적조회의 지원 등이다. 즉, 홍길동이란 이름 하나만으로도 키보드만 두들기면, 전국에 홍길동이 몇 명이며, 어디에 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등 모든 인적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전산화의 빛과 그림자

8년 전에 미국의 한 교사가 재판을 신청했는데 그 내용인즉, 이름이 필요없는 시대라면 아예 숫자로 이름을 대신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재판은 기각되었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를 전염병처럼 엄습하고 있는 비인간화(非人間化)의 물결을 애써 조장할 수 없다.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침범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었다.

전국의 주민등록이 전산화되고, 토지관리가 전산화되고, 재판기록이 전산화되고, 자동차 관리가 전산화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밀려오는 물결에 대처할 우리의 시각을 찾아야 할 때이다. 그것은 전산화가 던져주는 밝은 조명 뒤에 가리워진 그림자를 간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산화는 행정의 합리화라는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때로 엉뚱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사상의 체크, 통제의 무기가 되기 쉬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번호로 바뀌는 데 따른 위험을 최소화한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전산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글 강미옥 기자

